

2021년 서울 정신건강 ISSUE&BRIEF

이 슈 앤 브 리 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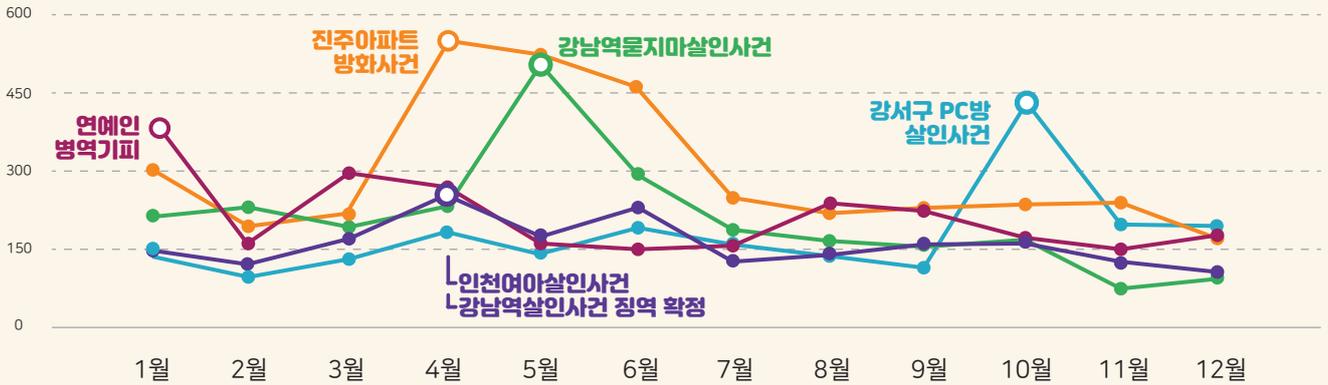
언론보도 현황과 사회적 인식

2021년
제 3호

위의 자료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언론보도 현황과 사회적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와 서울대학교 연구 결과를 활용하였다.

연도별 정신질환 기사 현황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단위: 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15년	379	158	300	275	163	154	159	242	213	171	150	178	2,542
2016년	216	234	192	233	502	293	191	171	158	166	74	96	2,526
2017년	151	119	171	266	176	234	130	146	158	167	125	111	1,954
2018년	153	100	134	186	146	187	168	135	116	432	198	192	2,147
2019년	303	192	221	558	521	458	252	215	222	233	228	163	3,566

-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정신질환 관련기사는 총 12,735건으로, 매년 평균적으로 약 2,547건 정도의 언론보도가 된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로 기사량이 가장 많았던 달을 살펴보면 정신건강 관련 이슈가 있었음.
- 2019년 '진주 아파트 방화사건'과 관련한 정신질환에 대한 관심 증가로 언론보도 건수가 갑작스럽게 증가함.
-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배포된 기사 12,735건 중 사건사고와 관련된 기사는 7,878건으로 61.9%로 나타남.

정신질환 연도별 키워드

순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관어	건수								
1위	정신	2263	정신	2692	정신	2259	정신	2244	정신	4036
2위	치료	1847	치료	2091	질환	1743	치료	1701	치료	3140
3위	질환	1771	질환	2039	치료	1659	질환	1680	질환	2917
4위	우울증	887	사건	1382	건강	1073	사건	1172	사건	2236
5위	병원	856	건강	1189	병원	877	우울증	1111	건강	2155
6위	건강	836	병원	1053	정신건강	852	병원	1081	병원	1870
7위	상태	737	결과	1005	사건	825	건강	1066	정신건강	1707
8위	사건	700	범행	986	우울증	785	정신건강	792	사회	1694
9위	증상	696	범죄	979	상태	735	범행	746	입원	1522
10위	스트레스	650	사회	926	결과	689	범죄	728	범행	1502
11위	사회	462	우울증	907	범행	664	상태	724	흥기	1435
12위	결과	574	정신건강	904	사회	661	결과	684	범죄	1347
13위	정신건강	552	살인	871	증상	636	살인	665	상태	1326
14위	생활	505	서울	831	범죄	623	진단	648	조현병	1248
15위	차례	474	상태	742	조현병	523	사회	644	진단	1142
16위	자살	461	강남	687	스트레스	460	증상	643	결과	1067
17위	범행	460	증상	676	살인	456	입원	621	살인	1041
합계	14,731		19,960		15,520		16,950		31,3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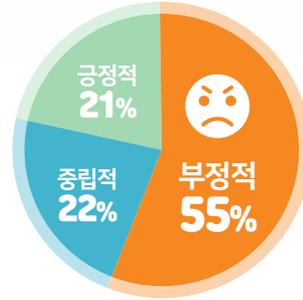
- 2015년 1위부터 17위까지의 연도별 키워드 건수는 14,731건이었으나 2019년 1위부터 17위까지의 연도별 키워드 건수는 31,385건으로 약 2배 이상 증가됨.
- '범행' 키워드의 경우 2015년 460건에서 2019년 1,502건으로 증가됨.
- 2015년의 경우 정신질환 중 '우울증' 키워드만 나타났으나 2016년 '조현병' 523건, 2019년 '조현병' 1,248건으로 키워드 순위 내에 나타남.
- 연도별 키워드 건수는 연도별 정신질환 기사 건수와 연관이 있으며, 건수의 증가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었음을 의미함.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2019년 기준)

◦ 뉴스키워드 ◦



◦ 긍·부정 연관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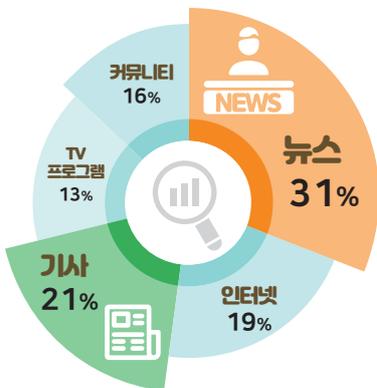


순위	연관어	건수	type	순위	연관어	건수	type
1	스트레스	3562	부정	6	혐의	1539	부정
2	범죄	2840	부정	7	피해	1517	부정
3	불안	2694	부정	8	고통	1399	부정
4	도움	2290	긍정	9	장애	1399	부정
5	다양한	2145	중립	10	위험	1399	부정

- 2019년 정신질환 관련 키워드로는 정신, 치료, 질환, 사건 등 다른 년도와 유사하게 높게 나타남.
- 특히 진주 아파트 방화사건과 관련한 키워드인 '범행', '흥기', '범죄', '조현병', '살인' 등이 다른 연도에 비해 언급량이 증가됨.
- SNS에서 언급된 긍·부정 연관어를 살펴보면, '스트레스', '범죄', '불안', '피해'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55%이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에 비해 약 2.6배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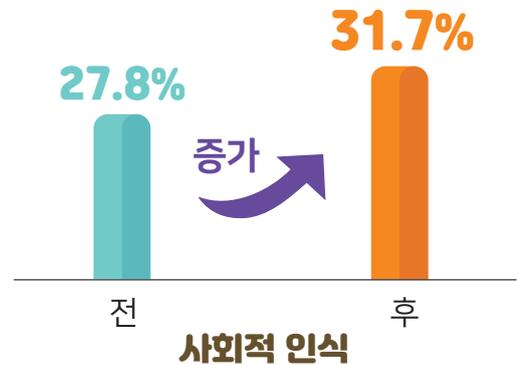
*자료원: 씬트랜즈

정신질환 정보획득 경로



주로 뉴스와 기사를 통해 조현병(정신질환)에 대한 보도를 접하며, 언론에 정신질환 관련 강력 범죄사건이 보도되면서 막연한 공포감이 형성됨.

정신질환자 범죄사건 이후 인식 변화



정신질환자 범죄 중 가장 큰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언론의 자극성 보도로 인해 부정적 인식이 강화됨.

*자료원: 서울대병원

해외 정신건강 언론보도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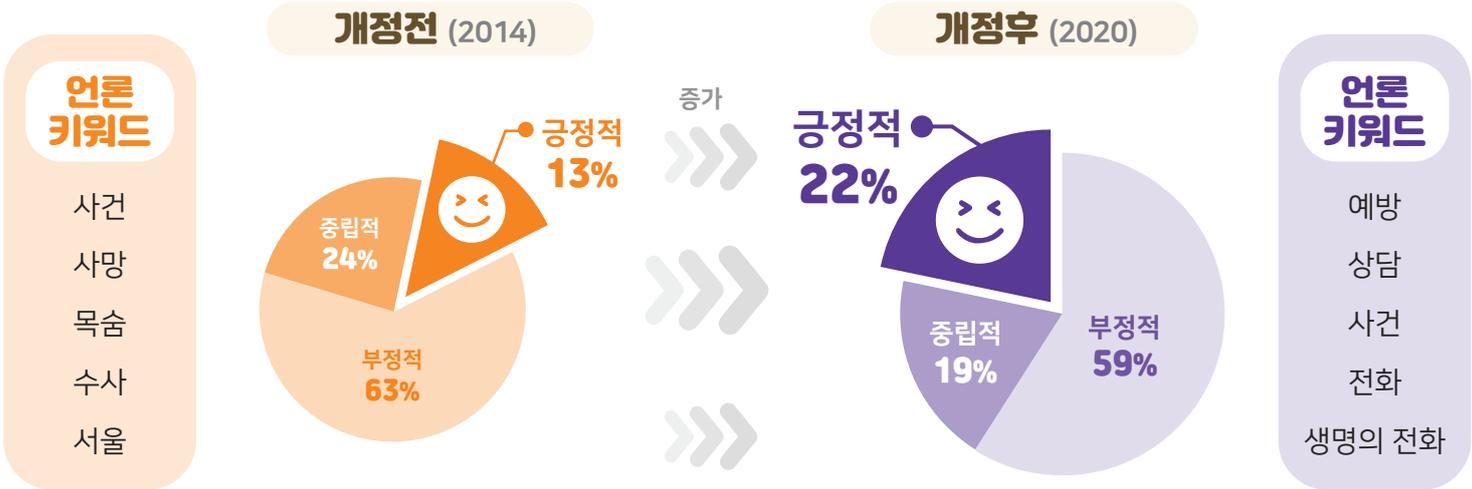


권고 사항 전문가의 견해 포함하기
정확한 용어 사용하기

피해야 할 표현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표현
정신질환과 폭력사이의 연관성 가정

*언론보도 준칙을 제공하는 국가를 표시함.
*권고사항 및 피해야 할 표현은 해당준칙들을 참고하여 공통부분을 발췌함.

자살보도 권고기준 개정 전·후 비교



- 2003년 처음 자살보도 권고기준이 배포 후 보완하여 2013년 개정하였음. 이에 개정된 년도를 기준으로 언론 키워드와 긍·부정 연관어를 비교함.
- 개정 전의 언론 키워드에는 사건, 사망, 목숨 등의 언급량이 높게 나타났으며, 폭탄 등 자살 수단과 관련한 키워드 나타남. 개정 후 언론 키워드로는 예방, 상담, 전화, 생명의 전화 등 예방, 대책과 관련한 언급량이 높게 나타남.
- 즉, 자살보도 권고기준 개정전과 비교했을 때, 개정 후 부정적인 인식이 감소하고,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했음을 확인 할 수 있음.

제언



정신질환과 관련한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기사 보도 건수 및 정신질환 키워드 건수가 증가하였음.

연도별 언론보도 건수 증가와 키워드 언급량의 증가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됨.



언론 키워드와 SNS에서 언급된 긍·부정 연관어가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나는 것을 통해 언론 보도가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

언론보도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미침으로 언론보도 시 신중할 필요가 있음.



자살보도 권고기준 개정 전후 사회적 인식을 살펴보면 부정적인 인식은 감소하고 긍정적 인식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보도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통해 정신질환 언론보도 방향을 변경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참고자료



빅카인즈 소개

54개 주요 언론사로부터 수집한 뉴스로 구성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 빅데이터 서비스



썸트랜즈 소개

SNS채널(트위터, 블로그, 인스타그램, 커뮤니티)에서 수집한 온라인데이터에 빅데이터 분석을 접목한 바이브 컴퍼니의 범용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서울대병원 자료 소개

다음소프트의 텍스트마이닝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3년 7개월(2016.01~2019.09)간의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 인식에 대한 소셜 빅데이터를 분석한 자료

*본 자료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자료로 추출일, 추출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